근본에 놓아 선악을 뛰어넘는 묘법

☞ 19면에서 계속

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열 가지 행을 했을 때도 줄지도 않고 만 가지 행을 한 것을 들인다 하더라도 두드러지지 않죠. 우리 생활 전체 들고나는 문은 하나이니까요. 문이라고 해서 이상스럽겠지만, 우리가 생겨났으니 어쩌겠습니까? 여자는 여자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행을 해야 하고 남자는 남자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 행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게 바로 생활법이요, 그것이 참선이요, 그것이 하나로 들고 하나로 나고 그게 그대로 행이에요. 여러분이 나기 이전 그 자체도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 이런 말 가끔 잘해요. 콩 나무가 콩 씨를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 콩 씨가 콩 나무가 된 줄 모르고 콩 씨를 바깥에서 찾으니 있을 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콩 나무에 열린 콩 씨가 하는 소리가 "이놈아! 그 콩 씨는 여기에다 두고 콩 씨를 바깥에서 찾으면 어쩌느냐?"하니까 "어! 콩 씨가 여기 있네."하면서 콩 나무가 그러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굼벵이가 매미가 됐는데 매미는 자기가 전자에 굼벵이였다는 걸 모르고 굼벵이는 매미가 됐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그게 한 꺼풀, 한 교차로인데, 그 교차로를 통과시켜서 회전하려고 우리는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를 틔우고 지혜를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한마음에 들었다 한마음으로 내고, 한마음에 들었다가 한마음으로 내는 거니까 잘했든 못했든, 악이든 선이든 전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기 주인공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처님께 어느 신도가 이렇게 여쭈었답니다. '나는 나쁜 일도 안하고 죄를 진일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가난하고 애고가 많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모든 게 다가오느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또 올 것이니라.' 하셨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게 마음 놀음이니까 마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주위의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내 마음 속의 여러 의식들이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우주의 법계에 전부 통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이 생기고 인과응보가 생기고, 또는 영계성이 생기고, 즉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물질, 마음, 의식 이런 거 하고 첨부가 되면 영계성이 되지요, 인연의 영계성.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업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시고 어떠한 업이든지 어떠한 고통이든지 다 거기다가 놔야 그것이 바로 자기발전소에서 모든 게 타버리는 거와 같아서 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업이 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업이 되는 겁니다. 악업이 되고 선업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다 놔라 이겁니다. 선업을 짓게 되면 악업도 거기 좇아 들어갈 것이고, 또 악업을 지으면 선업이 좇아 들어갈 테니까 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업도 놓고 선업도 놔라 이거죠. 선업은 감사하게 놓고 악업도 거기서 나온 거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니까 선업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다 하고 맹세코 거기다가 굴려서 놓는다면 악업 선업을 몰록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묘법이에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선이다 악이다 할 것도 없이 홀랑 벗어나서 자유자재로 살아가는 것을 꼭 봐야 속이 시원하겠기에 이렇게 일러 드리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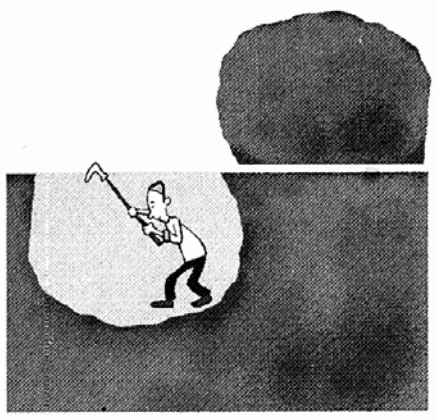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부터 깨달아야 둘 아닌 도리 알아

모든게 마음놀음…팔자운명은 없어

집안에 불상을 모시고 싶은데

문 평소에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건데, 요즘 여러 재가불자들의 신도연합회 등에서 각 가정마다 조그마한 불상(佛像)을 모셔서 조석으로 예불과 기도 정진을 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첫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뜻에 함께 동참하고 싶으나 선뜻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가정에서 불상을 모시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불상을 모셔놓고 예불을 모시고 기도를 하면서 빌고 지내다가 당신이 죽으면 그 불상을 어떡하시렵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고 부스럼 앞에서 우는 격이죠. 그러니까 정말이지 나쁜 그런 업식이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형상으로 부처님을 모셔 놓고 빌다 보면 자기 영혼들이 거기에 엉겨요. 정말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자기 혼백이 거기 엉기고 의식들이 엉겨 가지고 다음에 본인이 죽고 난 뒤에 자식들이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깐 이거는 마구니 소굴을 만드는 겁니다. 마구니 소굴을 만들어 가지고 마구니한테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자식들을 못살게 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건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열 분의 부처님을 보더라도 열 분을 각각 열 분으로 보지말고, 모든 건 내 한마음 속의 부처님으로, 하나로 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죽 속에 넣고 다니는 것도 제대로 못 찾으면서 들고 다니는 걸 하려고요?

혹이나 부처님을 가정에서 모시더라도 신앙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모신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조석으로 예배를 하고, 절을 하고, 목탁을 치고 그런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손손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 생각을 잘해서 모시기 바랍니다.

'관' 하다 보면 할일 안한것 같아

문 가끔은 어떤 일들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못되고가 없이 그냥 그렇게 관하고 있다 보면, 마치 무언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의 관에 잘못이 있지 않은지요. 그리고 사업과 가정의 안위 등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과연 바른 모습인가요?

답 왜 나는 망상과 번뇌가 이리 많나 하는 생각도 놓고, 또 공부를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놓고, 공부가 왜 이렇게도 안될까, 사생결단을 내야지 하는 생각도 놓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도 능는 것이 잘 안되나 하고 자꾸만 조바심을 낸다면, 그것은 마치 많은 다리를 가진 지네가 잘 가다가 문득 자기 다리를 보고는 '아니, 내 다리가 이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서로 엉키지도 않고 잘 갈 수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서로 다리가 엉켜서 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냥 믿고 놓고 가면서 잘 가는 것을 공연히 생각을 일으켜서 걱정을 하니까 오히려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된다 안된다 하는 생각도 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아니,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늘이 무너져내려 죽는다 해도 죽으면 죽는 대로 살지.' 이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게 되어서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살려고 바둥바둥 대면서 '나는 왜 다 말겨 놓는데도 안되나? 부처님! 주인공! 제발 살려 주십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해달라긴 누구더러 해 달랍니까? 해 달라면 벌써 둘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는 아무리 빌어본들 공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에 놓았다면 놓았다는 생각마저 없이 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 돼야 되는데, 잘 안되면 안 되는데, 혹시 안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노심초사한다면 결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근본을 믿고 좀 지극하게 맡겨보세요. 어차피 죽을 것 하루 빨리 죽으면 어떻고 하루 늦게 죽으면 좀 어떻습니까? 생명이 붙어 있는 날까지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떳떳하게 좀 살다가 간다면 하루 빨리 죽는 것도 억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럴까요? 다시 말하지만, 무엇을 하려고 하지말고, 또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더욱,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잘 되기를 바라는 생각도 모두 그 자리에 믿고 맡기는 작업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세진 빚 갚고 살고 싶어요

문 얼마 있으면 수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요? 어떻게 하면 크고 작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는지요?

답 내가 그전에 산으로 다니면서 공부하던 때의 얘깁니다. 장마가 들 때인데, 어느 때에 장마가 들지 인간들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 논두렁을 지나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연못처럼 물이 고인 데가 있었어요. 질척한 그곳에서 물을 떠서 논에도 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날이 궂은 날도 아닌데, 큰 개구리가 뒷다리에다가 뭘 걸고선 질질질질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알 있죠? 개구리 알. 그거 떠내려 갈까봐 끌고 가는 겁니다. 풀 섶에다 끌어다 놓는 거죠. 그게 작아서 보이지 않더니 자세히 보니까 물에서 질질질질 끌고는 그 거대한 풀 섶에다 갖다가 놓는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제 자식을 업어다가 풀잎 위, 나뭇가지 있는 데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볼 양으로 거기 가서 보고 또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이 되니까 그걸 다 작업을 해서 기다란 알집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글쎄 그 이튿날 보니까 웬걸, 날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면서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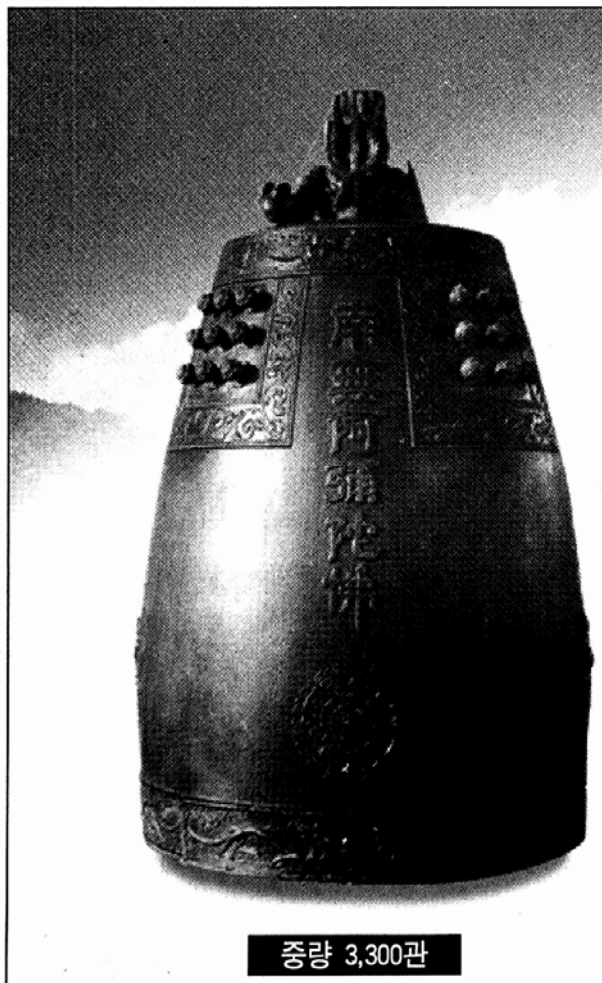
여러분은 거듭거듭 진화가 돼서 인간까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끼를 살리고 알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끌고 가는 개구리도 있고 두꺼비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만이 자식들의 뿌리에 밑거름을 줄 수 있고 또는 뿌리의 밑거름이 부모, 조상님들한테까지 가서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에 효도를 못해서, 효도는 차치하고라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부모님께 무슨 뭐 하나를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묵은 빚인데 말입니다. 나도 묵은 빚 때문에 많이 울었죠. 그랬지만 개구리만 못해서야 되겠느냔 얘깁니다. 개구리뿐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 장마가 들 것을 벌써 미리 알고 있고, 언제 태풍이 불어서 다 망가지고 쓰러지겠다하는 거를 미리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옥수수나무나 수수나무도 올해는 태풍이 불어서 내가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다 할 때는 뿌리를 넓게 잡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넓게 잡은 걸 보면 올해 태풍이 얼만큼 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식물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지각까지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지견이 풍부한 인간이 어떻게 기복으로만 나가면서 도깨비 장난을 하겠습니까? 인간이 귀신 짓을 하면 그런 습만 남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귀신밖엔 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양무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공덕이 됩니까 하니깐,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시를 아무리 많이 하고 집을 많이 지어준다 해서 공덕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공부를 해야 물을 한 컵 떠줘도 공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만민이 다 와서 공부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을 때 마음공부하고 가는 사람의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그 마음씨가 바로 이다음에 다시 돌아서 나올 때 무심의 통장으로서, 다시 그 통장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는 자식들에게도 햇빛을 줄 수 있고, 또 부모에게 묵은 빚을 갚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훌륭한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마음과 마음으로서 타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려면, 그리고 기르려고 하기 이전에 당장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부터 해결을 할 수 있는 해결사가 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남한테 기대고 한 뒷박 얻어서 먹고는 그것 없어지면 또 달라고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영원토록 세세생생에 벗어나서 정신계의 어버이로서 묵은 빚을 다 갚을 수도 있고 햇빛을 줄 수도 있고, 내 몸 속에 있는 중생들도 제도해서 모두 보살 부처가 되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위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빚을 갚고 싶다면 이제부터라도 더욱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불어 벗어난다면 하다 못해 초목들까지도 아마 합장을 하고 숭배할 겁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